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확대운영위원회 서기록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일시 2022년 9월 13일
오후 7시

장소 경영관 계단강의실
33B101

22-2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서기록

2022년 9월 13일 (화)

경영관 33B101

총학생회장 (장필규):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 출입구에서 비표를 반납 후에 나가 주십시오. 회의 중간에 퇴장하시거나 회의 후에는 명찰과 비표를 모두 반납해 주십시오. 발언 희망 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합니다. 발언 시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말씀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십시오. 거리두기를 위해 한 칸씩 띄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다과는 챙겨 가져서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정족수 확인을 위해 출석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름 석 자만 불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결 확인)

출석 모두 불렀고, 총 43명 참석하셔서 개최 정족수 확인되어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비표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비표 안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복도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씩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비표 없으신 분 한 분 계셔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은 제5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장필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기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기단은 제5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Spring 중앙집행위원회 인사운영국장 임서영 학우, 인사운영국 차장 이지아 학우가 맡았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보통은 학생사회 운영을 위한 큰 회의체를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에 개최하지만, 이번에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화요일로 대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확대운영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낭독이 있겠습니다. 총학생회칙 전문을 낭독하지는 않고요, 나눠드린 자료집 제 9쪽, 10쪽의 5장 확대운영위원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기구이자 총학생회의 운영기구입니다. 총학생회장단, 각 단

과대 학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은 확대운영위원의 자격을 얻습니다. 확대운영위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합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두며,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 1회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본회 예·결산안의 심의 및 조정 등 여러 안건을 다루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업무를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권은 위원 1인당 1표를 갖는데,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칙을 쪽 넘겨서 27쪽에 3번 보고 안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 안건으로 총학생회 운영입니다.

지난 1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도합 15차수 중앙운영위원회 2차수 연석 중앙운영위원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학기 학운-전학대회 이후 도합 16차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제54회 총학생회장단과 9개의 국서가 함께하는 중앙집행위원회입니다.

첫 번째 국서는 사무총괄국입니다. 사무총괄국은 총학생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검토합니다. 각종 공문 및 기록물을 관리하며 전체 예산을 집행합니다. 국장 내정으로 성권찬 정치외교학과 16학번, 차장 내정으로 경영학과 20학번 최인혜 학우입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국입니다. 인사운영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이번 확대운영위원회 서기록을 포함한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국장 내정으로 미술학과 19학번 임서영 학우, 차장 내정으로 영상학과 21학번 이지아 학우입니다.

다음으로 학사정책국입니다. 학사정책국은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학사 제도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주로 다룹니다. 등록금 집행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간사로 참여하여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합니다. 국장 내정으로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20학번 서성현 학우, 차장 내정으로 글로벌경제학과 21학번 김원우 학우입니다.

다음은 문화기획국입니다. 문화기획국은 대동제, ESKARA 등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축제의 문화를 선도합니다. 문화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온 오프라인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총괄합니다. 국장 내정으로 사회학과 14학번 김민기 학우, 차장 내정으로 의상학과 19학번 이유빈 학우입니다.

다음으로 인권복지국입니다. 인권복지국은 학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합니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시설의 환경 개선을 주로 맡습니다. 국장 내정으로 한문교육과 19학번 이지현 학우, 차장 내정으로 컴퓨터교육과 19학번 김태건 학우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입니다. 대외협력국은 외부 업체들과의 협업, 제휴를 통해 학우들을 지원합니다. 기업 프로모션을 유치하고 웰컴 스프링 멤버십을 담당하며, 국토대장정을 기획하고 총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장 내정으로 영상학과 18학번 조준범 학우, 차장 내정으로 경영학과 21학번 박정현 학우입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국입니다. 홍보소통국은 총학생회 모든 사업의 시각화를 담당합니다. 총학생회 공식 소통 창구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를 맡는데요. 국장 내정으로 영상학과 20학번 임예진 학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콘텐츠국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은 총학생회 주관 사업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학우들을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국장 내정으로 영상학과 20학번 배민아 학우, 차장 내정으로 영상학과 21학번 김지혜 학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준비국입니다. 졸업준비국은 학위수여식과 학위복 대여 사업, 졸업앨범 등 학우들의 졸업 복지를 위한 행사를 총괄합니다. 동문초청강연회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예정되어있는 학생 예비군 훈련을 위해 예비군 조식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 내정으로 사회학과 19학번 조인서 학우, 차장 내정으로 걸쳐엔테크놀로지융합전공 19학번 이예진 학우입니다.

혹시 1번 안건인 총학생회 운영 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이 계실까요?

네,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총학생회 상반기부터 여름방학까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권희성 부총학생회장께서 직접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권희성): 안녕하십니까, 제54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권희성입니다.

총 30개의 사업 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통, 학업/학사, 문화와 관련된 사업인 1번부터 12번까지의 사업 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질의응답을 받고 13번부터 30번까지의 사업 보고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장단과의 오프라인 소통창구, 'Spring Camp'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달 1회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Spring Camp에서 수렴된 다양한 피드백 및 의견은 담당 집행국 및 관련 부처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Spring Mate'입니다. Spring Mate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사업의 공백으로 기층 단위 학생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상된 공약입니다. 먼저 총학생회 전체 배분액 중 10%를 줄여 단과대에 배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3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회 총학생회장단이 단과대 단위운영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소통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이전까지 모든 학우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총학생회 공식 소통 창구가 부재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자잘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금주 내 오픈 예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공지 사항, 총학생회의 제휴 업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학생회칙, 단과대 및 학과 등의 학생 자치 단체의 회칙을 아카이빙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회의록을 보다 투명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성균인 백인소’입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금주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균인 백인소의 경우 학내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성균인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열린 공론화의 장입니다. 킥고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홈페이지 내 성균인 백인소 페이지에서 직접 안전을 상정하실 수 있으며 올라온 안전에 대해 좋아요, 댓글 작성을 통해 의견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상정한 안전이 14일 이내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면 이 안전에 대해 직접 답변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업/학사 관련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입니다. 21학년도 결산안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45페이지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22학년도 도전학기 정규교과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먼저 21학년도 도전학기에 시행되었던 정규교과프로그램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 희망 수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받았으며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22학년도 도전학기 프로그램 개설 후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신3품 인증제 개편’입니다. 학기 초 진행한 스프링 프레임워크 설문조사를 통해 신3품 인증제가 졸업 요건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각 품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해 교무처와 지속적인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반영되어 개선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 세부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관련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2022 금잔디문화제: 개나리 노란 꽃잔디 아래’입니다. 대학가에서 이루어지는 첫 오프라인 축제라는 점에서 초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으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학생 참여 공연, 플리마켓, 액티비티 존 등을 구성하고 행사의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50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2022 대동제 ESKARA: 뛰어라 세상을 흔들 때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대동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축제의 신나고 흥겨운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주간 부스 및 야간주점, 학생 참여 공연,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를 준비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성균관대학교만의 고유한 행사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토대장정을 재개한 '2022 킹고대장정'입니다. 스태프를 포함하여 100여 명의 성균인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박 8일간 제주 애월에서 하도까지 총 171km를 종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표는 자료집 6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동문초청강연회 만나:봄'입니다. 동문 선배님이신 이영진 헌법재판관님께서 연사님으로 함께해 주셨으며 선배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스케치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총학생회 공식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SKKU X PHOTOISM 셀프 촬영 부스 설치'입니다. 하계 학위수여식을 기념하는 이벤트 프레임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의 이미지가 담긴 이벤트 프레임을 기획하여 경영관 필로티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9월 16일 금주 금요일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통, 학업 및 학사에 관련한 사업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시면 다음 사업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및 인권, 제휴 관련 사업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으로 매달 2만 원 이상의 어도비 구독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네임드 라이선스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899개의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으로 '2학기 교외 상권 및 교내 시설 불법 촬영 기기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학기에도 동일하게 불법 촬영 기기 점검을 시행하였는데요, 불법 촬영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당 1회 진행됩니다. 기기 점검이 완료된 곳에는 안심 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으로 '출입구 전면 개방'입니다. 학사 운영 정상화에 따라 미개방 출입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였으며 4월, 폐쇄되어 있던 모든 출입구를 개방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은 '건물별 운영 시간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되었던 시험 기간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시간, 학생회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기숙사 통금 시간 완화를 위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숙사와 논의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통금을 해제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은 '슬기로운 분리배출 캠페인'입니다. 무분별한 분리배출로 인해 교내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분리배출 안내, 매뉴얼 리뉴얼, 관련 안내 자보 및 릴스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동제 내에 세부 콘텐츠로 캠페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교내 미화 근로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사업은 ‘흡연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흡연 인구의 편안한 흡연 구역 이용과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수렴하였으며, 교내 관리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 8월, 흡연 구역 구획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흡연 구역 내 재떨이를 구매하고 교체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은 ‘자판기 위치 이동 및 품목 다양화’입니다.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자판기의 위치를 파악 후 학생회관 등에 학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품목을 다양화하여 편리하게 자판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야외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학술정보관 내부 계단 일부, 학생회관 3층 외부 계단, 법학관 외부 계단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으로 ‘야외 휴게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코로19로 인해 경제관, 수선관 등의 야외 휴게시설의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손상된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테이블을 교체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업은 ‘시험기간 응원 간식배부’입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 배부를 진행하였으며 1학기 종강 기념 미니 간식 배부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간식 배부 품목은 자료들 76에서 7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사업은 ‘비건학식 시범 운영’입니다. 채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도 비건 음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비건 학식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옵션을 통해 일반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사업은 ‘웰컴 스프링 멤버십’입니다. 웰컴 스프링 멤버십은 학우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휴 혜택을 많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상권과 직접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주변 맛집과 제휴를 맺은 1탄에 이어 2탄, 3탄이 현재 업로드되었으며 코인노래방, 운동시설 등과의 제휴를 맺은 4탄 또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제휴 업체는 총학생의 인스타그램 링크트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집 81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업은 ‘공뿌마켓 무인매대 설치’입니다. 학내 편의점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학우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낵류와 기획상품들을 판매하는 무인매대를 학생회관 3층 라운지, 국제관 1층 라운지에 설치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업은 ‘그린카 제휴’입니다. 공유 차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제휴 할인으로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공지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달 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업으로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의류 제휴'를 맺었습니다. 학우들이 면접이나 공식 행사 등에서 입을 수 있는 남성 정장 및 여성 의류 브랜드에 대한 할인가를 적용한 제휴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사업은 '2학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운동장이용협의회'입니다. 운동장이용협의회칙이 실제 운동장 이용에 적용하기에는 미약한 부분들이 많아 회칙을 개정하였으며, 총원 24인 중 참석한 23인 모두 찬성하여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회칙은 자료집 8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원활히 2학기 평일 운동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사업은 '2022년 1차 졸업앨범 촬영'입니다. 지난 5월 졸업 예정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2학기 2차 졸업앨범 촬영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른 번째 사업은 '하계 학위복 대여 사업'입니다. 학사 및 석사 학위수여자들이 추억을 남기고 졸업할 수 있도록 성균관대학교 전통 학위복을 대여하였으며 금잔디 포토월 또한 리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0개의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진행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다음으로 인준 안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을 안건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회비 배분안, 그리고 학생회비 예산안, 그리고 학생회비 결산안, 후원금 결산까지 총 인준 안건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학생회비 배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배분안 배분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진행될 선거를 위해 제5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비용으로 학생회비 전체에서 320만 원을 우선적으로 제하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총 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한다. 동아리 연합회에 총 학생회비의 11%를 배분하고, 총학생회에 28%를 배분합니다.

남은 61%를 단과대학에 배분합니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칭합니다.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배정액에 단과대학 배분액의 44%를 배정하며, 그 금액은 총 단과대학의 수로 나누어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배분합니다. 납부 인원 비례액은 단과대학 배분액의 23%를 배정하며,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는 그 금액에 총 학생회비 납부인원 분의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비 납부 인원을 곱한 금액을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 비례액은 단과대학 배분액의 33%를 배정하며,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는 그 금액의 총 등록생 수 분의 해당 단과대학 등록생 수를 곱한 금액을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이 있습니다. 이는 법과대학에 장기 등록생 한 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단과대학 총학생회비 납부인원에서 법과대학 학생회비 납부인원을 뺀 분의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비 납부인원을 곱하여 법과대학을 제외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추가로 배분합니다. 이는 즉 기본 배정액의 단과대학 배분액을 남은 단과대학으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회비 배분 결과입니다.

총학생회 28%로 8,839,600원, 동아리연합회 11%로 3,472,700원, 단과대학 합계 61%로 19,257,700원으로 전체 합계 31,570,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실제 학생회비 배분 결과는 9월 5일 자 기준으로 등록이 마감된 9월 중순을 지나면 이보다 소폭 상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분 기준에 따라 단과대학 배분 결과를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대학 1,151,572원, 문과대학 3,154,008원, 법과대학 0원, 사회과학대학 3,122,718원, 경제대학 2,485,716원, 경영대학 3,247,215원, 사범대학 1,512,278원, 예술대학 2,204,228원, 글로벌리더학부 1,198,330원, 글로벌융합학부 1,181,634원으로 총 19,257,7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숫자는 다음 주 전학대회에는 더 최신화된 버전을 반영하여 자료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학생회비 배분 결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당 안건에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실 때는 비표를 들어서 양 끝으로 넘겨주시면 저희 집행위원들이 걷어서 집계할 예정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한다.’에 찬성하시는 위원분은 비표를 들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를 양 끝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의자 양 끝으로 모아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걷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위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권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에 대한 의결 결과입니다. 출석 위원 43명,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예산안입니다.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인준을 받아야 총학생회는 배분

받은 학생회비 배분안으로 2학기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저희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13,759,201원, 당기 학생회비 수입으로 8,839,600원, 수입 총계 22,598,801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편성한 지출 항목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ESKARA '22 실무비용 9,850,000원, 경영관 학부열람실 공기청정기 설치 6,677,600원, 대여사업 물품 추가 비치 1,309,100원, 이외에 차기 이월금 2,562,101원, 그리고 예비비로 재정 운영 세칙에 따라 10% 까지 편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200,000원 편성해서 지출 총계 22,598,801원입니다.

다음은 별첨의 사업 기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기획으로 ESKARA '22 실무 비용입니다.

이번 ESKARA '22는 기존의 건학기념제를 계승함과 동시에 양 캠퍼스에서 각자 진행되는 축제를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일원화해서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건학을 기념하는 것에서 나아가 두 캠퍼스가 하나 되어 건학을 기념하는 축제로 발전, 계승시키고자 합니다. 건학 기념의 이념 확장과 더불어 응원제를 ESKARA '22의 핵심 콘텐츠로서 진행하여 학우들의 소속감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인자전을 위한 비용을 대부분 편성하였는데요, 팀 조끼 300개에 300,000원, 컬링대회폴세트에 250,000원, 슈퍼배구폴세트 200,000원, 3인4각바지 200,000원, 버블슈트씨름 600,000원, 자이언트젠가 200,000원, 레이저 서바이벌 2,600,000원, 대형 현수막 3,040,000원, 캐노피 천막 900,000원, 테이블 1,080,000원, 의자 480,000원 총계 9,850,000원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모두 렌탈 금액이고요, 세부 산정 근거에서 모두 견적 및 렌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경영관 학부열람실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2학기 개강과 맞추어 경영관 지하 1층 학부열람실이 완전히 새롭게 재단장했는데요, 이 학부열람실이 지금 새로 만들어서 페인트 냄새도 나고, 실내 대기질도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경영관 학부열람실에 공기청정기, 대형 타워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학부열람실 내에 발생하는 공기를 정화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워형 공기청정기 5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6,677,6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여사업 물품 추가 비치입니다.

저희가 오피스아워에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특히 더 많은 대여사업 물품들이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손된 것들도 있어서 몇 가지는 새로 사고, 망가진 것은 교체하고자 합니다. 캐노피 대형 천막 3개에 1,200,000원, LG 노트북 충전기 2개에 19,700원, 보조배터리 3개에 89,400원, 총계 1,309,100원 편성하였고 그 세부 선정 근거에서 견적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기 이월금입니다.

2학기 필수 사용금과 예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차기 이월금으로 설정하여 원활한 사업 인계를 목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내년 1학기에 사용될 금액이며 2,562,101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영 세칙에 의거하여 10% 예비비를 편성하여 2,200,000원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이상 학생 위기 2학기 예산 총학생회 학생회비 2학기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분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과 학생회장 (송문규): ESKARA '22중에 레이저 서바이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총학생회장 (장필규): 사실 레이저 서바이벌은 아직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콘텐츠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인자전을 기획하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인자전의 개인 콘텐츠라고 해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올려온 수많은 자연과학캠퍼스 학우들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우들이 인자의 대결 구도로 레이저 서바이벌을 금잔디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잔디에서 주간에 레이저 서바이벌을 비롯한 여타 다른 게임들이나 콘텐츠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레이저 서바이벌 설치 및 렌탈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 학생회장 (송문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장필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안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상기 예산안을 인준한다.' 즉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바깥쪽 좌측 양 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이신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43명,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입니다.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생회비 결산안은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1학기 전학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기간은 저희 임기 시작인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인 9월 6일까지 기준으로 결산을 잡았습니다.

수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대, 즉 작년 중선관위 이월금 70,470원, 전기 학생회비 이월

금 17,907,495원, 당기 학생회비, 즉 1학기 학생회비 13,036,800원, 예금 결산 이자 17,816원, 도합 31,032,581원입니다.

지출에는 큰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여사업 물품 확대 및 추가 비치로 1,119,380원, 대동제 실무 비용으로 9,950,000원, 그리고 아까 사업 보고에 있었던 외부계단 미끄럼방지 공사에 6,204,000원 지출하였고, 총 지출합계 17,273,380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13,759,201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의 결산 자료, 즉 세부 근거 및 통장 내역 등등은 곧 준비될 결산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회의 끝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럼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분 계실까요?

그럼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한다.’ 즉 찬성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43명,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후원금 결산입니다.

저희 후원금은 총학생회 학생회비 외에도 따로 기업이나 기타 공문, 혹은 타 학생들,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외부로 따로 유치하고 후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이고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따로 항상 결산해서 학운과 전학대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결산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이 특정되게 연결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총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30,772,835원이고요, 지출 합계는 24,048,260원입니다.

먼저 전기 후원금 이월금으로 2,700,477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성모안과의 제휴 광고비로 2,800,000원, 고려CCC에서 제휴 광고비로 6,000,000원, 푸드트럭에서 입점비로 6,400,000원, 주식회사 렌지드 대동제 제휴 광고비로 1,000,000원,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금 800,000원, 1학기 성대네켓 수익금 9,462,000원, 대동제 물품 대여료 1,569,186원, 대여물품 손망실 비용 30,000원, 예금 결산 이자 11,172원이 총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인데요.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간식 배부에는 후원금 960,000원을 일부 사

용하여 간식배부에 보태었고요, 다음으로 여름 학위복 대여 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이 있는데요. 이 여름 학위복 대여 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에 쓰인 801,160원은 수입에 있는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금 800,000원으로 충당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학위복 대여 사업을 총학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대학원생들의 학위복 대여사업까지 학부가 도맡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격려하고 후원해 주는 차원에서 원총에서 800,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입국원 총학생회 실무복을 맞추는 비용으로 218,4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금잔디문화제 진행에 기획사의 2,500,000원 지출했습니다. 대동제 안내 책자에 1,300,000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고려CCC의 제휴 광고비로 만든 책자입니다. 대동제 영상 촬영에는 735,700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동제 행사 진행에 기획사에게 물품 대여비, 손망실 비용 등 포함하여 5,980,000원 지출했습니다. 킹고대장정에 영상 장비 렌탈을 위해 1,39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셀프 촬영 부스 필름은 포토이즘 부스에 필요한 필름을 700,000원으로 지출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삼척시 산불 기부 9,462,000원은 저희가 소통창구를 통해 한 번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 1학기 성대네컷 수익금인 9,462,000원 전액을 삼척시로 기부하였습니다.

총지출 합계 24,048,260원입니다. 후원금 결산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분 계실까요?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한다.’ 즉 찬성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입니다. 출석 위원 43명,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논의 안건입니다. 이번 학운에는 특별하게 논의 안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책자 외에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논의 안건지를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의 안건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총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요구의 안’이라고 되어 있는 안건이고, 해당 안건은 2022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발의한 논의 안건입니다. 조금 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운 안건으로 상정되었었고요, 학운에서 해당 안건이 또다시 통과될 시에 다음 주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논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는 지금 총학생회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회칙을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나뉘어서 운영되면서 회칙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총학생회장단과 올해 연석중운, 또는 연석회개소위가 판단하였을 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학우들과 여러 가지 인자의 벽이 허물어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올해의 회칙을, 이제까지 분화된 회칙을 올해 통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회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학기 정기 학운과 전학대회에서는 전부 개정된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요. 통합 회칙 제·개정이라는 거는 워낙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안이고, 큰 단위의 의견 수렴 및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회칙 개정의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 방향에 대해 대다수의 위원분들께서 동의 해주신다면 이 회칙 개정을 심사숙고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10월 말에 임시 전학을 소집해서 통과하는 안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논의 안건지에 대해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연석회개소위는 2022년 7월 15일에 양 캠퍼스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구성이 공고되었습니다.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총 20인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캠 10명, 자과캠 10명, 중운 및 학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석회개소위원회 활동 경과입니다. 7월 15일 구성 직후 7월 17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6차례의 소규모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4차례의 연석회개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석 개정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실무 회의를 이번에 특별하게 진행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통합 총학생회칙 제·개정 추진 방향과 체계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페이지인데요, 먼저 추진 배경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회칙의 통합 시도입니다. 아래에 발췌해둔 문단은 제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2017년에 편찬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해설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해설집이 더 궁금하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총학생회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고요, 일단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발췌된 부분은 2017년 전부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쓰인 해설집입니다.

2017년 전부개정 이전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은 '92년도 회칙개정안'을 바탕으로 제정된 '92년도 명륜회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93년도 양 캠퍼스 공동회칙 제정 시도가 처음 무산된 이후 '94년도 공동회칙 최종안'을 기반으로 매년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매년 무산되었다. 즉 '92년 체제'의 총학생회칙이 공동회칙의 제정 전까지 사용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학생회 공동회칙’은 2010년도까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의 공동 총학생회칙으로 그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0년도 회칙개정안’이 양 캠퍼스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는 해당 안이 가결되지 않고, 자연과학캠퍼스에서는 가결되면서 회칙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2016학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지은 위원(당시 영상학과 회장)이 발의하여 발족된 회칙개정소위에서는 ‘통합론’과 ‘분리론’ 중 어떤 노선을 택할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최종안으로 도출된 2016학년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에서는 ‘점진적 통합론’이 채택되었다.

참고로 16학년도 통합세칙 전부개정안도 부결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는 ‘부분적 통합론’이 채택되었다. 각 캠퍼스 자치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은 존중하되, 회칙의 분화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 총학생회칙을 공동 개정하여 부분적인 통합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상기 내용은 자연과학캠퍼스 회칙개정소위(위원장 오훈영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와 합의를 거쳐 각 캠퍼스 자치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장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통합한 양 캠퍼스 공동의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으로 양 캠퍼스의 대표자회의에 상정되었고, 모두 가결되었다. 이로써 ‘2017년 체제’가 새로운 회칙 체제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는 2017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해설집 17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칙은 17년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17년 체제라고 하면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년에 이 17년 체제가 정립되고 나서 매년 각 캠퍼스마다 회개소위를 거치면서 회칙의 분화가 심화되어 이 당시보다 지금 인자 사이에 회칙에는 상이한 부분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부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연석 회개소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요, 현행 회칙에는 오직 캠퍼스별 총학생회만 존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라는 표현을 관례적으로 사용하지만, 회칙상으로는 엄연히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본교의 위상을 고려하고, 하나의 대학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라는 단일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 회칙을 제정한다면 유일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경으로 변화한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캠퍼스 독립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사회의 연석 운영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제54대 연속 중앙운영위원회는 예정된 2학기 정기 회의를 포함하여 총 4차례를 개최하였고요, 개최할 예정이고, 회칙개정소위원회의 역시 전면 연석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집행국 자체로도 연석 사업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학우 체감 복지와 혜택을 증대하는 효과

를 낳았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 4인이 단일 선본으로 출마하며 공동 운영의 필요성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 간의 활발한 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좌가 확대, 융합 LC 제도의 정착, 캠퍼스 간 교차 수강 교과목 등으로 인해 캠퍼스 간 교류가 굉장히 증대되었는데 이는 금년 5월 대동제 당시 캠퍼스 교차 방문율이 40% 정도 추산되며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통합 문화 건설을 위한 연석 중운 공동 선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별 회칙의 분화 심화인데요, 일단 캠퍼스별 상이한 최고 집행부 명칭이 다름과, 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에만 존재하는 독립학부 등의 명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분화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상이한 운영인데, 전학대회 소집 조건으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인사캠과 자과캠이 다르고, 학생 총투표 실시에 대한 총학생회 소집과 용도도 다른데, 인사캠에는 없지만 자연과학캠퍼스는 총학생회장단이 학생 총투표를 요구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이한 운영 체계가 다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한 두 회칙을 어떻게 통합하냐는 부분에 통합 회칙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 연속 회개소위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회와 본회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재도 회칙에는 전회와 본회 두 가지의 회가 존재합니다.

현행의 전회는 인사캠 총학생회와 자과캠 총학생회를 통칭하는 말인데, 밑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회라는 표현은 제44조에 들어서야 등장한 건데, 연석전체학생총회를 설명하면서 인사캠과 자과캠 총학생회의 실무 의결기구 이하를 합쳐서 전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회칙에서 갖는 위상과 대표성을 고려하였을 때, 캠퍼스별 총학생회가 아닌 본교 전체를 아우르는 총학생회를 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 예시로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행 본회인데요, 이를 ‘캠퍼스회’라는 단어를 도입하여 캠퍼스로 나뉜 본교의 특수한 상황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각 캠퍼스 총학생회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 학대운영위원회, 전학대회 같은 회의를 연석으로 항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캠퍼스회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예시를 ‘제0조 캠퍼스회를 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구조로 연석회의 구조에 대한 재확립이 중요합니다. 연석회의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캠퍼스별 회의의 상위 회의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상을 반영한 순서 조정을 통해 연석회의의 중요도를 격상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예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및 논의에서 통합 회칙의 예시로 제1장 총칙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인데, 통합 회칙의 1장에 대해서 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와 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로 나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캠퍼스별 상이한 전학대회 대의원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이 인사캠과 자과캠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과캠은 학부 인원수의 비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식을 도입하여 전학대회 대의원을 인사캠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데, 인사캠과 자과캠의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이 현행 인사 회칙 사이에서 가장 크게 상이한 부분이고, 이는 앞으로 연석회개소위와 연석 중운, 혹은 다음 주 전학대회에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 방향성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시전학대회의 소집 요구가 있습니다. 소집 요구 배경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학생사회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2학기 정기 학운/전학대회에서 방향성을 심의 및 합의할 수 있고, 학기 중 광범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오류 및 불합치 지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수차례 연석회개소위 추가 진행을 통해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칙 개정을 진행하고, 향후 회칙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결 과정으로 회칙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따라 아래의 추진 계획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만약 이번 학기 정기 학운과 정기 전학에서 이 안건이 모두 통과가 돼서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하였을 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스케줄표입니다.

그래서 안건명은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한다.’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안건명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해당 안건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단순히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이 통합 회칙의 제·개정 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동의하고 연석회개소위가 통합 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의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있어서 질의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은 편하게 거수해 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대운영위원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42명의 위원이 출석하셔야 하는데, 현재 38명으로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네 분만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확대운영위원분들께서 간절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20시 17분 기준 출석 위원 43명으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의결 사항인데 의결 사항은 ‘임시전학대회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는 안건으로 의결을 하게 되지만, 해당 안건이 가결이 된다면 이 논의 안건에 나와 있는 연석회개소위가 제시하는 통합 회칙 제·개정 의 방향과 기초를 인정하고, 통합 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의결 결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해당 논의 안건 혹은 안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 있으신 분은 편하게 거수해 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의결은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안건이 가결됐다고 해서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전학대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절차이고, 다음 주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비로소 가결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찬성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는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면 저희 집행위원이 모아서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위원분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전체 서기록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